

## 성인이행기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진숙\*·이윤석\*\*

### 초 록

이 연구는 기존의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들 대부분이 기혼을 대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서 벗어나 미혼으로까지 확장시켜 가사노동의 젠더불평등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시도하였다. 성인이행기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을 통계청 2014년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을 혼인상태와 동거형태(Living arrangements)에 따라서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가족과 함께 사는 미혼, 혼자 사는 미혼, 자녀가 없는 기혼, 자녀가 있는 기혼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은 어느 유형에서도 남성보다 가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고, 가사노동 시간 또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성인이행기 중에서 결혼이라는 생애단계를 경험하며 가사노동 시간량이 급증했으며, 자녀가 생기면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기혼 여성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 또한 남성보다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혼자 사는 미혼 여성은 다른 유형의 여성들보다 가장 적은 가사노동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반면 혼자 사는 미혼 남성은 다른 유형의 남성들보다 가장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었고, 가족과 함께 사는 남성은 가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고, 시간 또한 적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을 수행하도록 사회화되었으며, 실제로 젠더행하기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제어 : 생활시간조사, 가사노동, 성인이행기, 생애단계 전환, 미혼, 동거형태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대학원(jinsook0729@hanmail.net)

\*\* 교신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yslee@uos.ac.kr)

## I.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만혼화 현상과 비혼 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2017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2.9세, 여성 30.2세로 나타났고, 조혼인율은 2014년 6.0을 기록한 뒤 2017년 5.2라는 사상 최저 수치로 하락하였다(통계청, 2017). 한국사회에서는 법률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고 그 다음으로 임신과 출산을 겪는 것이 일반적인 출산에 이르는 과정이라 보았을 때, 저출산의 직관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은 미혼 또는 비혼 인구를 ‘결혼’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청년들은 자발적/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지체하고 있으며 때로는 일평생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비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결혼이라는 생애사건은 인륜 지대사로서 개인의 생활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결혼하기 위한 결혼 비용은 청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결혼하고나서의 책임감과 부담감은 좀처럼 결혼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의 일생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는 시기가 연장되면서 다양한 성인 이행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김영, 2015; 남춘호·남궁명희, 2012). 혼인율 증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성인이행기’ 과정에 놓여 있는 인구집단에 대한 이해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면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김영란·장혜경·이윤석, 2017; 이삼식·최효진, 2010). ‘결혼’과 같은 중요한 생애사건을 겪으며 부모로부터의 정신적·경제적 독립을 겪는 시기를 아네트(Arnett)는 ‘과도적 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 지칭하였다(Arnett, 2000; Arnett, 2001). 아네트에 따르면 ‘과도적 성인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사회적 역할 획득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의 일생 중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미래 삶의 탐색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았다(Arnett, 2000; Arnett, 2001). 그러나 동일한 시기를 겪고 있긴 하지만 여성과 남성은 전혀 다른 과정에 놓여 있기도 하다(은기수, 1999). 모엔(Moen)은 생애과정에 남녀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처음 주목하여 ‘성별화된 생애과정(Gendered life courses)’을 개념화시켰다(Moen, 2010).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출산과 양육을 겪으면서 생애과정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진다(배은경, 2009). 또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게 되면서 여성들은 취업과 동시에 출산과 양육을 수행해야하는 이중 부담의 성인기 이행 과정에 놓이게 되었다. 박기남(2011)은 한국의 20-30대 여성이 성인기로 이

행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고용과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가져오는 미래 삶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결혼이라는 중요한 생애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전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자아실현 욕구가 증가한 미혼 여성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혹은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박기남, 2011; 우해봉, 2009). 청년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 부양 능력과 규범준수에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안선영·김희진, 2012; 이정하·박정윤·윤나나, 2017).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맞벌이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더욱 많은 가사노동 책임이 부과되고 있는 현실이다.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158분, 남성은 28분으로 똑같이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하루에 130분 더 많은 시간을 집안일에 쏟고 있었다(통계청, 2014). 이러한 불평등한 현실로 인하여 한국의 가사노동 관련 연구들은 기혼 부부를 대상으로 집중되어(장인수·우해봉, 2017; 안미영, 2018; 이창순, 2014) 온 반면 미혼의 가사노동에 대한 양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가사노동은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라는 오랜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 아래 학습된 젠더 사회화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역할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부부 중심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이다. 하지만 성역할 습득은 어려서부터 가정 내에서 부모 세대로부터 자연스럽게 체득되기 때문에(Cunningham, 2001) 결혼 이전의 미혼 남녀에게서도 성역할 습득의 결과물은 존재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과연 기혼 여성들만이 남성보다 더욱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하며, 수행하도록 사회화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아울러 결혼하기 전의 생애단계에서는 가사노동에 대한 성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며, 성인기 이행 과정을 겪으면서 남녀 간 가사노동 역할 수행에 어떠한 변화와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결혼으로 대표되는 생애사건을 전후로 한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는 인구집단에 주목하고, 생애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가사노동 시간량을 남녀 구분하여 살펴보려 한다.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이유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같은 듯 다른 생애과정을 겪고 있으며, 가사노동은 젠더사회화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떠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이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가사분담의 젠더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혼 중심에서 벗어나 미혼까지 범위를 확장시키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며, 성인기 이행 과정에 놓인 인구집단의 가사노동 시간량을 파악하여 기초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려는 데 있다고 하겠다.

## II. 선행 연구 및 연구 문제

### 1. 성인기 이행과 가사노동

한국에서 미혼 성인의 가사노동에 관한 양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가사노동이 가족구성원들 간에 서로 가사를 분담하고 조정함으로써 가족공동체적 의식을 함양할 수 있으며(채금희·최동숙, 2000), 가사노동을 통하여 주체적인 생활인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생활기술과 역할을 습득할 수 있는(이지선·조혜정, 1999) 긍정적인 기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는 일찍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통해 배운 생활적 능력은 성인이 되어 발휘된다는 점(채금희·최동숙, 2000)을 보았을 때, 아동·청소년기 이후 맞이하는 성인기 이행 과정에 놓인 청년들의 가사노동 연구도 필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된다.

먼저 성인기 이행 과정에 놓인 남녀의 가사노동에 대한 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장미혜 외(2011)의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에서는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에 놓인,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해 가사노동에 대한 젠더 차이를 발견하였다. 남녀 모두 성인으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생애사건은 ‘결혼’이라고 꼽았으나 결혼 이후의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남성들은 본인보다는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고, 여성들은 불평등한 가사분담과, 양육에 대한 부담, 그로 인한 경력단절을 이유로 남성보다 결혼을 미루고 있음을 밝혔다. 남성면접자들은 가사노동 분담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보고 자란 부모의 가사분담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버지는 가사일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어머니가 전적으로 도맡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면접자 또한 ‘도와준다’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결혼 후에 피동적인 가사노동 수행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부모의 생활방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미혼 여성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사노동은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에게 중요한 문제는 결혼 후에 ‘어떻게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 차승은(2014)은 니트 청년의 시간 활용 행태를 파악하면서 가사노동 시간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니트 청년이 남성보다 더 긴 가사노동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여성 중에서는 20대 후반 여성이 가장 많은 가사노동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일하지 않는 니트 청년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가사노동을 수행하며 가족 안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간 활용을 파악한 것으로 미혼의 가사노동에 관한 자세한 양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생애과정에 따른 가사노동 연구를 오래 전부터 수행해왔다(Scott Coltrane and Masako Ishii-Kuntz, 1992; Scott and Glenna, 1994; Baxter et al., 2008). 스캇과 글레나(Scott and Glenna, 1994)는 연구 대상들을 혼인상태와 동거형태(Living arrangements)에 따라 총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가사노동 양상을 비교하였다.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혼자 사는 미혼, 동거 커플, 결혼, 이혼, 사별로 구분하여 가사노동 시간을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살다가 독립하게 되면 남녀 모두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거를 하게 될 경우 여성은 더욱 증가하고 남성은 약간 감소하게 된다. 결혼할 경우 여성은 더욱 증가하는 반면 남성은 더욱 감소하였다. 곱타(Gupta)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성을 미혼, 동거 커플, 기혼, 이혼, 사별의 유형으로 나누어 가사노동 시간을 비교한 결과, 남성은 동거 커플 또는 기혼일 경우 가사노동 시간이 감소했으며, 여성은 반대로 증가하는 결과를 통하여 이성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가구에서 나타나는 젠더 차이를 보여주었다(Gupta, 1999). 크레이그 외(Craig et al.)는 시간일지 자료를 이용하여 성인이행기 과정의 청년들의 동거형태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량과 젠더적 가사활동에 관하여 연구하였다(Craig et al., 2016).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가족이 아닌 가구원과 함께 사는 청년, 혼자 사는 청년, 자녀가 없는 커플로 유형화하여 비교한 결과, 여성은 어느 유형에서나 남성보다 가사노동 시간이 더 길었으며, 남성은 다른 유형의 남성보다 혼자 사는 경우 가장 가사노동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Craig et al., 2016). 나아가 가사활동을 스스로를 위해 수행하는지 다른 가구원을 위하여 수행하는지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가사노동 수행의 젠더 차이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스캇과 글레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젠더행하기(doining gender)'로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가사노동을 남성적 가사노동 항목과 여성적 가사노동 항목, 중립적 가사노동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이러한 가사노동 항목 구분 또한 여성은 여성적 일을 더욱 많이 수행

하며 남성은 남성적 일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통해 각자가 ‘젠더 행하기(doing gender)’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밝혔다(Scott and Glenna, 1994).

이윤주(2018)는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특히 결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 배우자 지위가 남녀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로 변화시키며, 김소정(2013)은 기혼 여부, 취업 여부, 가구원 수 증가에 따라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즉, 점차 성인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겪는 성역할 태도의 변화는 가사노동 수행과 직결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 2.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의 가사노동 수행은 여러 개인적 특성들이 모여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의 가사노동 이론에 따라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며 어떠한 특성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량이 변화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젠더 이데올로기는 가사노동을 설명하는 가장 주요한 이론 중에 하나이다. 부부의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평등주의에 가까울수록 공평하게 가사 분담을 한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젠더 이데올로기는 누가 가사노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상적인 신념을 의미할 뿐 실제로 가사노동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되어있지 않다는 입장이 있다(Thompson and Walker, 1989).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 수준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Pleck, 1983). 남성의 성역할 태도가 여성의 태도보다 가사분담에 더 중요한 작용을 한다(Daniel and Jamie, 2013)는 시각과 여성의 태도가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공존하고 있다(Hardesty and Bokemeier, 1989). 반대로 남성의 성역할 태도는 가족 형성 초기의 가사노동 분담에서는 그다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Scott and Masako, 1989).

시간 가용성(Time Availability) 이론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량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가사노동에 사용할 시간은 줄어든다. 따라서 단순히 유급노동 시간에 따라 가사노동 분담이 결정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지만, 가사분담은 단순히 가용할 시간의 양에 따라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Hardesty and Bokemeier, 1989).

함께 사는 가족구성원에 따라서 가사노동 시간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 누구와 함께 거주하는지, 가정 내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게 수행되기 때문이다. 가족구성원의 변화와 역할은 생애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부만 있을 때보다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사노동이 증가하며 더욱이 어린 자녀가 많아질수록 가사노동이 증가하게 된다(Walker and Woods, 1976; 임정빈·임혜경, 1992). 어린 자녀의 존재는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Coverman, 1985; 임정빈·임혜경, 1992; Scott Coltrane and Masako Ishii-Kuntz, 1992). 그러나 자녀가 크면 부모의 일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엔 오히려 줄어들기도 한다(Scott and Masako, 1989). 이상의 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역할 태도, 유급노동 시간, 요일(평일/주말), 가족 또는 자녀 유무를 포함한 동거형태(Living arrangements) 요인을 선정하였다.

이전연구에 따르면 미혼 남녀의 가사노동을 인식하는 태도에 분명한 차이가 드러났으며 혼인상태와 동거형태에 따라서 가사노동 시간량에 차이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이 곧 가사노동 수행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양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사회에서의 성인이행 남녀의 생애단계별 가사노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국의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가사노동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선정한 개인적 특성 중 어떠한 요인이 가사노동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자료 및 대상

이 연구는 2014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sup>1)</sup> 2014년 조사된 대상 중 만 25세부터 39세까지의 5,381명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성인기 이행 과정에 놓인 청년들이며, 그 과정에서 겪는 가장 중요한 생애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결혼을 중심으로 크게 미혼과 기혼으로 구분한다. 그 중 미혼은 ‘가족과 함께 사는 미혼<sup>2)</sup>’, ‘혼자 사는 미혼’으로 세분화하고<sup>3)</sup> 기혼은 ‘미취학 자녀가 없는 기혼’, ‘미취학 자녀가 있는 기혼’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일반적으로 규범화되어 있는 생애주기에 따른 것으로 대학 졸업 후 취직, 부모로부터 독립, 결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 형성 주기를 반영한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이러한 규범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졸업-취직-독립-결혼이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여기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청년이 성인이 되는 중요한 발달 과업이 ‘결혼’으로 대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분은 아직까지 유효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 1)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현재 조사된 가장 최근 자료이며, 시간일지로 기록된 유일한 자료이다. 가사노동 시간의 측정 방법에는 시간일지자료 또는 서베이 문항 방식이 있다. 시간일지를 통한 시간량 조사는 하루 일과를 그대로 일기처럼 옮겨 적으므로 응답자의 주관적 개입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서베이 문항 방식은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하여 하루 시간사용량을 한 두 개의 문항을 통해 응답하는 것이다. 김은지·김수정(2009)의 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 가사노동 시간을 측정하였을 때, 서베이 문항 방식에서 남성은 자신의 가사노동 시간을 더 많이 보고하고 여성은 더 적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가사노동과 관련된 젠더화된 사회규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다 정확한 현실 파악을 위해서는 시간일지자료가 시간을 측정하는데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2) 가족과 함께 사는 미혼이라 함은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을 뜻한다.
  - 3) 미혼의 경우 ‘성인기 이행’ 과정에 놓인 이들의 생활 방식 비교를 보다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미혼’ 중에서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결혼 가능성’이 있는 미혼들을 대상으로 한정하기 위해서이다. 보통 대학 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취업’이라는 관문을 남겨두고 있으며 아직 ‘결혼’과는 거리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살펴 볼 가사노동 시간은 돌봄노동인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를 제외한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가정관리’ 항목 시간을 말한다<sup>4)</sup>.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에 따른 ‘가정관리’ 항목은 총 8개의 중분류로 나뉜다. ‘음식준비’, ‘가정용 섬유 및 신발 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관리’, ‘애완 동·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가 해당된다. 또한 ‘애완 동·식물 돌보기’를 제외한다. ‘애완 동·식물 돌보기’에 해당하는 시간량이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가사노동에서 이 항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사노동’ 시간은 응답자가 시간일지에 ‘주행동’으로 적은 시간 사용량만을 대상으로 한다. ‘주행동’과 함께 ‘동시 행동’에 가사노동 시간이 집계될 수 있으나 ‘동시 행동’이 ‘주행동’보다는 행동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부차적인 속성을 가진 행동이라는 점 때문이다.

개인별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남녀별로 연령, 교육수준, 직업, 유급노동 시간, 개인 소득, 성역할 태도, 요일, 생애단계 전환 유형에 따라 살펴보려 한다. ‘생애단계 전환(life course shifts)’ 유형은 ‘가족과 함께 사는 미혼’, ‘혼자 사는 미혼’, ‘미취학 자녀 없는 기혼’, ‘미취학 자녀 있는 기혼’으로 구분하였다(이하 ‘생애단계 전환 유형’ 또는 ‘생애단계 유형’으로 지칭함). 연령은 25세부터 39세까지이며, 20대와 30대로 나누었고,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대학 졸업(수료 포함)’, ‘대학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결혼 가능성이 있는 집단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학교 재(휴)학생은 제외하였다. ‘대학 졸업’에는 2년제와 4년제를 구분하지 않았다. ‘대학원 이상’은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 수료, 중퇴, 졸업을 모두 포함하였다. 직업의 경우 무직, 학생, 전문직 및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단순 노무직, 농업으로 구분하였다.<sup>5)</sup> ‘학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은 ‘대학 재(휴)학생’은 제외하였으므로

4) 가사노동의 범주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가사노동에 가족 보살피기를 포함할 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육아 및 가족돌봄을 포함하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한다(Coltrane, 2000). 이 연구에서는 성인으로의 전환기에 놓인 미혼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므로 이들의 특성상 집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돌봄노동’을 제외한 가사노동으로 정의한다.

5) 생활시간조사의 직업 구분은 직업분류(6차개정)에 따라 ①관리자, ②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사무 종사자, ④서비스 종사자, ⑤판매 종사자, ⑥농림어업숙련 종사자, ⑦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⑧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단순노무 종사자로 구분하고 있다.

다른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을 뜻한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시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인 결혼 적령기에 근접해 있어 결혼할 가능성이 있고 결혼하고 나서 또는 취업 후 다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유급 노동 시간은 응답자가 시간 일지에 기록한 ‘지난 1주간 주업<sup>6)</sup>’으로 일한 시간이다. 소득은 없음부터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2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성역할 태도는 ‘남성의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응답한 것으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진보적인 태도(적극 반대)를 가지며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요일은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 특성

조사 대상을 연령과 교육수준, 직업, 유급노동 여부, 근로시간, 개인 소득, 성역할 태도로 구분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연구의 대상은 총 5,381명으로 그 중 여성이 2,879명(53.5%), 남성이 2,502(46.5%)명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성의 생애단계 전환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여성 중에서 가족과 사는 미혼 여성은 329명, 혼자 사는 미혼 여성은 159명, 미취학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은 1,105명, 미취학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은 1,286명이었다(〈표 1〉).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여성은 전체 여성의 25.0%, 30대 여성은 75.0%를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을 보면 모든 생애단계 전환 유형에서 대학 졸업 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미혼 여성과 미취학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에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의 비율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 다른 여성들에 비해 대학 졸업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68.6%), 대학원 이상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여성 중에서 무직자가 40.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생애단계 유

6)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주업’을 자기 또는 가구(원)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로써 지난 1주간 취업시간이 가장 많은 일을 뜻한다. 이 때, 가사일, 무보수 봉사활동, 18시간 미만 동안 무급으로 가족 일을 도운 시간 등은 제외하였다.

형별로 비교해 보면 자녀가 있는 없는 간에 기혼 여성의 무직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결혼을 함으로써 출산을 준비하거나 아이를 돌보느라 직장을 쉬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혼 여성들의 경우 전문직 및 관리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하는 비율은 가족과 사는 미혼이 79.3%, 혼자 사는 미혼이 86.2%로 나타났다. 혼자 살 능력이 있는 이들이 혼자 살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혼자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혼이 되면 일하는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자녀가 없을 때는 68.0%가 일을 하다가 자녀가 생기면 37.1%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 동안의 평균 노동 시간<sup>7)</sup>을 살펴 본 결과 가족과 사는 미혼 여성은 36.1시간을 일했고, 혼자 사는 미혼 여성은 이보다 약간 많은 37.4시간을 일했다. 결혼한 여성의 노동 시간은 줄어들어 자녀가 없을 때는 28.5시간을 일하고 있었고, 자녀가 생기면 14.2시간으로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서 아예 직장을 그만두거나, 육아 휴직 중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없는 경우가 전체 여성의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애단계 유형별로 보면 기혼보다 미혼들의 소득수준이 더 높았다. 기혼 여성들은 무직자가 많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성역할 태도를 보면 ‘여자는 집안일, 남자는 바깥일’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가족과 함께 사는 미혼은 84.8%, 혼자 사는 미혼은 79.9%, 자녀 없는 기혼은 78.9%, 자녀 있는 기혼은 77.4%로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성인으로의 이행’에 좀 더 다가갈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게 됨을 유추할 수 있다. 거꾸로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조사대상의 특성(여성)

(단위 : 명, %)

변수	구분	전체		미혼				기혼				x <sup>2</sup>
				가족과 사는		혼자 사는		자녀 없는		자녀 있는		
연령	20대	721	25.0	150	45.6	68	42.8	354	32.0	149	11.6	***
	30대	2,158	75.0	179	54.4	91	57.2	751	68.0	1,137	88.4	
교육 수준	고졸 이하	847	29.4	102	31.0	38	23.9	334	30.2	373	29.0	*
	대학 졸업	1,845	64.1	220	66.9	109	68.6	701	63.4	815	63.4	
	대학원 이상	187	6.5	7	2.1	12	7.6	70	6.3	98	7.6	

7) 지난 1주일 동안의 유급노동 시간 중 ‘주업’만으로 계산하였다.

변수	구분	전체		미혼				기혼				$\chi^2$
				가족과 사는	혼자 사는	혼자 사는	혼자 사는	자녀 없는	자녀 있는	자녀 있는	자녀 있는	
직업	무직	1,174	40.8	64	19.5	22	13.8	339	30.7	749	58.2	***
	학생	21	0.7	0	0.0	0	0.0	8	0.7	13	1.0	
	전문직 및 관리직	630	21.9	87	26.4	54	34.0	272	24.6	217	16.9	
	사무직	534	18.6	85	25.8	43	27.0	252	22.8	154	12.0	
	서비스직	348	12.1	69	21.0	32	20.1	146	13.2	101	7.9	
	단순 노무직	165	5.7	23	7.0	8	5.0	84	7.6	50	3.9	
	농업	7	0.2	1	0.3	0	0.0	4	0.4	2	0.2	
노동 여부	일 안함	1,253	43.5	68	20.7	22	13.8	354	32.0	809	62.9	***
	일 함	1,626	56.5	261	79.3	137	86.2	751	68.0	477	37.1	
평균 근로시간		23.5		36.1		37.4		28.5		14.2		***
개인 소득	없음	1,053	36.6	29	8.8	3	1.9	315	28.5	706	54.9	***
	50만 원 미만	113	3.9	10	3.0	2	1.3	45	4.1	56	4.4	
	50~100만 원 미만	226	7.9	22	6.7	14	8.8	101	9.1	89	6.9	
	100~150만 원 미만	443	15.4	80	24.3	30	18.9	207	18.7	126	9.8	
	150~200만 원 미만	394	13.7	74	22.5	42	26.4	186	16.8	92	7.2	
	200~250만원 미만	300	10.4	62	18.8	40	25.2	120	10.9	78	6.1	
	250~300만 원 미만	169	5.9	20	6.1	14	8.8	72	6.5	63	4.9	
	300만 원 이상	181	6.3	32	9.7	14	8.8	59	5.3	76	5.9	
성역할 태도	매우 동의	73	2.5	11	3.3	4	2.5	31	2.8	27	2.1	.
	다소 동의	532	18.5	39	11.9	28	17.6	202	18.3	263	20.5	
	다소 반대	1,236	42.9	142	43.2	66	41.5	463	41.9	565	43.9	
	매우 반대	1,038	36.1	137	41.6	61	38.4	409	37.0	431	33.5	
합계		2,879	100.0	329	100.0	159	100.0	1,105	100.0	1,286	100.0	

\*p &lt; .05, \*\*p &lt; .01, \*\*\*p &lt; .001

남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남성들은 여성보다 30대의 미혼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남성의 초혼 연령이 여성보다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성들의 교육수준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대학졸업자가 가장 많았다. 기혼의 교육 수준이 미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남성 중 29.5%가 단순 노무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미혼 남성들의 단순 노무직 비율이 다른 직업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혼 남성들 중에서도 단순 노무직 비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사무직 비율과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목할 점은 가족과 사는 미혼 남성 중 20.6%

가 무직 상태였다. 반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의 무직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녀가 없을 때 무직 비율이 12.2%와 비교해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의 무직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자녀가 생기면 생계부양자로서 양육의 책임 의식이 강해져 일을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생계부양 능력이 있는 남성들이 자녀를 낳기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과 달리 남성은 미혼에서 기혼으로 갈수록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평균 노동 시간도 늘어났다. 가족과 사는 미혼 남성의 79.4%만이 일을 하고 있었고, 평균 시간은 38.9시간이었으나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게 되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없을 시에는 혼자 사는 미혼 남성보다는 일하는 비율이 낮고 노동 시간도 다소 적었지만 아이가 생기면 97.6%의 남성이 일을 하고 1주일 평균 노동 시간은 50.8시간에 육박했다. 자녀가 없는 기혼 남성들은 여성도 함께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계 부양에 많은 압박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남성들을 보면 3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31.3%로 가장 많았다. 생애단계 전환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족과 살거나 혼자 사는 미혼 남성들보다 결혼 한 남성들의 소득이 더 높은 편이었다. 미취학 자녀가 없는 기혼 남성의 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25.1%로 가장 많았고, 200~250만원이 19.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들의 절반 가까이는 300만원 이상(46.2%)을 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역할 태도를 보면 ‘여자는 집안일, 남자는 바깥일’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혼자 사는 미혼이 7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가족과 함께 사는 미혼은 67.0%, 자녀 없는 기혼은 60.9%, 자녀 있는 기혼은 53.8%로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인으로의 이행’에 좀 더 다가갈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거꾸로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조사대상의 특성(남성)

(단위 : 명, %)

변수	구분	전체		미혼				기혼				x <sup>2</sup>
				가족과 사는		혼자 사는		자녀 없는		자녀 있는		
연령	20대	524	20.9	107	34.0	75	32.2	266	30.1	76	7.1	***
	30대	1,978	79.1	208	66.0	158	67.8	619	69.9	993	92.9	
교육 수준	고졸 이하	769	30.7	143	45.4	88	37.8	239	27.0	299	28.0	***
	대학 졸업	1,590	63.6	163	51.8	138	59.2	596	67.3	693	64.8	
	대학원 이상	143	5.7	9	2.9	7	3.0	50	5.7	77	7.2	

변수	구분	전체		미혼				기혼				x <sup>2</sup>
				가족과 사는		혼자 사는		자녀 없는		자녀 있는		
직업	무직	220	8.8	65	20.6	27	11.6	108	12.2	20	1.9	***
	학생	1	0.0	0	0.0	0	0.0	0	0.0	1	0.1	
	전문직 및 관리직	484	19.3	31	9.8	47	20.2	156	17.6	250	23.4	
	사무직	584	23.3	56	17.8	44	18.9	208	23.5	276	25.8	
	서비스직	451	18.0	48	15.2	41	17.6	165	18.6	197	18.4	
	단순 노무직	738	29.5	111	35.2	73	31.3	239	27.0	315	29.5	
	농업	24	1.0	4	1.3	1	0.4	9	1.0	10	0.9	
노동 여부	일 안함	229	9.2	65	20.6	28	12.0	110	12.4	26	2.4	***
	일 함	2,273	90.9	250	79.4	205	88.0	775	87.6	1,043	97.6	
평균 근로시간		45.8		38.9		43.0		42.8		50.8		***
개인 소득	없음	137	5.5	40	12.7	5	2.2	81	9.2	11	1.0	***
	50만원 미만	45	1.8	18	5.7	6	2.6	17	1.9	4	0.4	
	50~100만원 미만	61	2.4	18	5.7	10	4.3	31	3.5	2	0.2	
	100~150만원 미만	189	7.6	46	14.6	23	9.9	79	8.9	41	3.8	
	150~200만원 미만	380	15.2	60	19.1	49	21.0	155	17.5	116	10.9	
	200~250만원 미만	485	19.4	65	20.6	56	24.0	175	19.8	189	17.7	
	250~300만원 미만	423	16.9	39	12.4	47	20.2	125	14.1	212	19.8	
	300만원 이상	782	31.3	29	9.2	37	15.9	222	25.1	494	46.2	
성역할 태도	매우 동의	139	5.6	8	2.5	8	3.4	37	4.2	86	8.0	***
	다소 동의	868	34.7	96	30.5	55	23.6	309	34.9	408	38.2	
	다소 반대	1124	44.9	166	52.7	118	50.6	395	44.6	445	41.6	
	매우 반대	371	14.8	45	14.3	52	22.3	144	16.3	130	12.2	
합계		2,502	100.0	315	100.0	233	100.0	885	100.0	1,069	100.0	

\*p &lt; .05, \*\*p &lt; .01, \*\*\*p &lt; .001

## 2. 가사노동의 행위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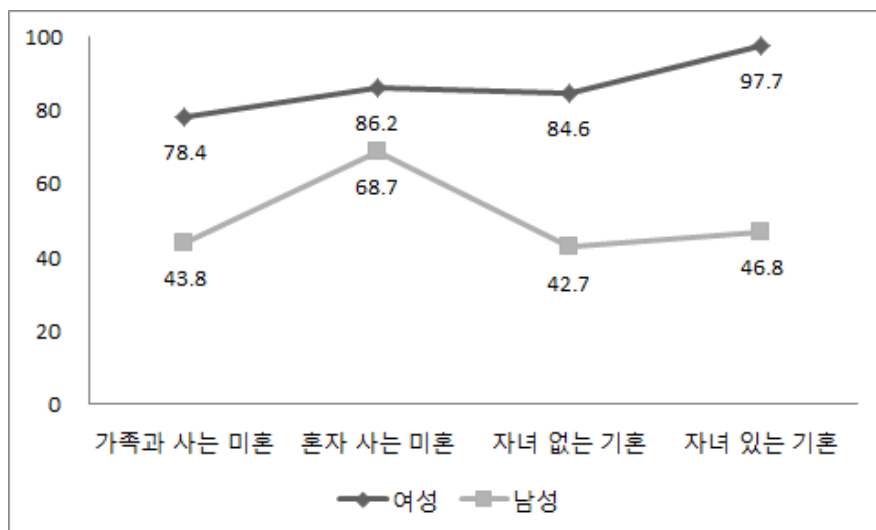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행위자 비율을 비교해 보면 가사노동을 하루 10분 이상 한 여성은 89.9%, 남성은 그 절반 수준인 47.0%로 나타났다(그림 1).

먼저 여성의 행위자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가족과 함께 살 때는 78.4%만이 가사노동을 하다가 혼자 살게 되면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86.2%).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미취학 자녀가 없을 때는 혼자

살 때보다 약간 적은 84.6%만이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미취학 자녀가 생기면 무려 97.7%로 늘어나 거의 모든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과 살 때는 가족구성원 중에서 어머니가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수행하므로(Craig et al., 2014) 가장 낮은 비율의 행위자가 보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미혼의 딸은 어머니의 가사노동 행동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보고 배우면서(이연숙·박경은, 2000) 어머니의 가사노동 수행능력의 많은 부분을 체득하게 된다(지금수, 1990). 나아가 가사 수행 능력이 높은 어머니의 딸이 결혼해서 높은 가사노동 수행력을 보인다고 한다(지금수, 1994).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고 가족과 살 때는 43.8%가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혼자 살게 되면 약 24%가 증가한 67.7%가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42.7%까지 행위자 비율이 떨어져 가장 적은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자녀가 생기면 약간 증가한 46.8%가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성들은 혼자가 살 때를 제외하고 가사노동에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혼자 산다는 것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던 이라 하여도 혼자 살게 되면 살기 위해 혹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혼자 살 때 약 69%의 남성이 가사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 다시 42.7%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혼을 하면 아내가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약 57%의 남성이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자녀가 태어나도 가사노동을 하는 남성은 크게 늘지 않는다. 여성들이 자녀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거나 쉬면서 전업주부가 되어 집안일을 도맡아하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전가시켜 어머니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다른 선택을 제한하는 우려가 있다(Oakley, 1974). 정민우·이나영(2011)의 연구에서는 ‘집(home)’이라는 규범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성별화된 규범을 확인하였다. 어머니가 부재한 가정에서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책임이 딸에게 전가되었다. 가족 내에서의 가사분담 불평등이 성적 규범에 의한 것이고, 그 모습은 규범적인 공간인 ‘집’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 곳에서 남성들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가사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동의 장소라 지적한다(McDowell, 1983 ; Massey, 1984).

(단위 : %)



[그림 1] 성별/생애단계 유형별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

### 3.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 1) 생애단계 전환(Life course shifts)과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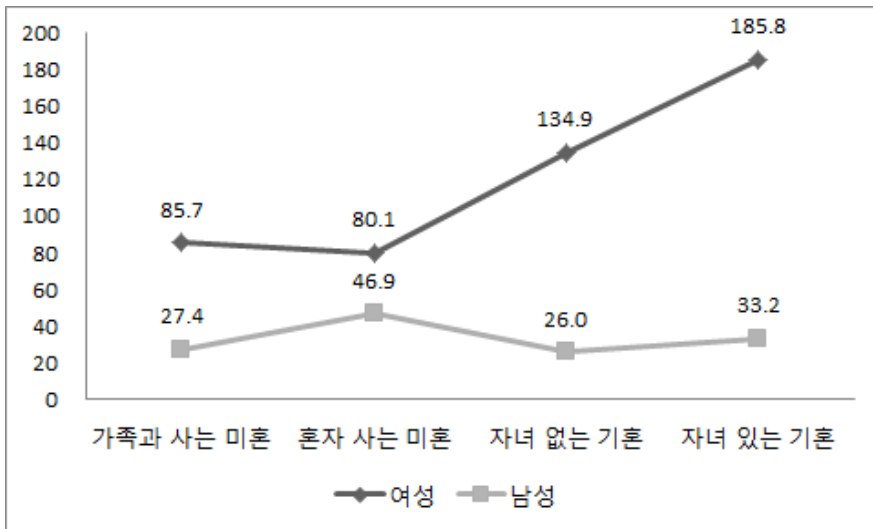
하루에 가사노동을 얼마나 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주행동'으로 집계된 가사노동의 전체 시간량을 합한 후 전체 응답자 수로 나눈 값이다. 그 결과 여성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가사노동 보내는 시간은 149.0분이었고, 남성은 여성의 약 1/5 수준인 31.2분이었다.

생애단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혼자 살 때 가장 적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었다. 미혼 여성이 가족과 함께 살 때는 하루에 평균 85.7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었지만 혼자 살게 되면 그보다 약간 줄어든 80.1분을 사용했다. 결혼 후 가사노동 시간은 급증하였다. 미혼일 때보다 약 50분이 증가한 하루에 134.9분 동안 가사노동을 하였고, 미취학 자녀가 생기면 미혼일 때보다 약 2배 많은 185.8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여성들은 누군가와 함께 살 때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대상이 남편이 되었을 때 크게 증가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더욱 더 증가하고 있었다.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투자하고 있었지만 여성과 달리 혼자 살 경우에 가장 많은 가사노동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혼자 산다는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꾸려가야 한다는 의미로 식사를 하는 것부터 빨래, 청소까지 온전히 혼자서 맡아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은 혼자 사는 남성 다음으로 많은 가사노동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는데 이는 어린 자녀의 존재가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주는 이전연구를 뒷받침한다.

(단위 : 분)



[그림 2] 성별/생애단계 유형별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 2) 가사노동 항목별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남녀 모두 가사노동 항목 중에서 세 가지 주요 항목인 ‘음식 준비’와 ‘청소 및 정리’,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사노동 항목 중에서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하려 한다. 상위 세 개는 일반적으로 여성적 유형(female-typed)의 가사노동이라 구분된다(주익현, 2018; Demaris and Longmore, 1996). 여성들이 요리, 설거지, 빨래, 청소 등 매일 발생하는 일상적인 종류의 집안일을 담당하는 것과 달리 남성들은 가끔씩 발생하는 주택 관리, 자동차 보수 및 관리 등의 일을 맡는다(Scott and Glenna, 1994). 부부 간에 공평한 가사분담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남성적 유형의 일보다는 여성적 유형의 가사일에 초점을 맞춘다(주익현, 2018). 일상생활에서 매일 수행해야 하는 일을 누가 얼마나 하는지 보는 것이야말로 남녀 사이의 가사분담 관계와 헌신, 책임감 정도를 측정하는데 적절하기 때문이다(Demaris and Longmore, 1996).

여성들은 하루 평균 전체 가사노동 시간(149.0분) 중에서 ‘음식 준비(72.9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청소 및 정리(37.3분)’, ‘상품 및 서비스 구입(23.8분)’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생애단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혼자 사는 미혼’ 여성의 주요 항목 간의 평균 시간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는 다른 가구 구성원들의 몫을 대신 해줄 필요 없이 본인이 필요한 만큼만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혼자 사는 미혼’ 여성이 음식 준비에 24.2분을 쓰는 것과 달리 ‘가족과 사는 미혼’은 34.8분, ‘미취학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은 63.3분,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은 96.8분으로 늘어남을 알 수 있다.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면 혹은 가족구성원이 늘어날수록 나를 위한 음식 준비 말고도 다른 가족구성원을 위한 일까지 추가된다는 뜻이다. 결혼을 하면 여성은 아내가 되어 남편과의 식사 준비를 수행해야 하며, 자녀가 생기면 자녀 몫까지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혼자 살 때 가장 적은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은 다른 가족구성원의 몫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되며 성역할 기대를 하는 타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젠더행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가사노동 항목별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단위: 분)

항목	전체	가족과 사는 미혼	혼자 사는 미혼	자녀 없는 기혼	자녀 있는 기혼	one way
전체 가사노동	149.0	85.7	80.1	134.9	185.8	***
음식 준비	72.9	34.8	24.2	63.3	96.8	***
상품 및 서비스 구입	23.8	17.9	24.0	25.4	23.9	*
청소 및 정리	37.3	23.0	21.6	32.4	47.1	***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0.6	0.0	2.1	0.5	0.8	*
차량 관리	0.2	0.2	0.0	0.1	0.3	
가정용 섬유 및 신발 관리	12.5	7.6	7.4	11.5	15.2	***
기타 가정관리	1.7	2.1	0.8	1.6	1.9	

\*p &lt; .05, \*\*p &lt; .01, \*\*\*p &lt; .001p

## 3) 남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남성들은 전체 가사노동의 하루 평균 시간(31.2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활동은 ‘상품 및 서비스 구입(9.7분)’이었고, 비슷하게 ‘청소 및 정리(9.6분)’가 뒤를 이었고 ‘음식 준비(8.5분)’으로 나타났다. 생애단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혼 남성들은 미혼 여성들과 유사하게 ‘음식 준비’, ‘청소 및 정리’, ‘상품 구입 및 서비스’ 순대로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다. 기혼 남성들은 이와 달리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다음으로 ‘청소 및 정리’, 마지막으로 ‘음식 준비’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가족과 사는 미혼’ 남성들의 ‘음식 준비’ 시간량은 전체 27.4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10.8분이었다. 혼자 살고 있는 남성들은 전체 가사노동 시간(46.9분) 중에서 ‘음식 준비’에 가장 많은 19분을 쏟고 있었다. 미혼 남성들은 기혼 남성들에 비해서 전체 가사노동 시간 중에서 ‘음식 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옆에서 식사를 챙겨주는 ‘아내’가 부재해 스스로 챙겨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혼자 사는 미혼’ 남성의 경우 특히 ‘음식 준비’에 관해서는 다른 유형의 남성들에 비해 약 2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살 때 시간을 쏟게 되는 가사노동이 ‘식사하기’임을 알 수 있었다. 기혼의 경우 여성과 비교하여 보면 기혼 여성들이 ‘음식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을 가장 적게 하는 것과 반대로 기혼 남성들은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대신 ‘음식 준비’를 가장 적게 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역할 분담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젠더화된 가사노동이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게 한다. 남성들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차량 관리’와 ‘기타 가정관리’에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여성과 달리 추가적으로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위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시간이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낼 만큼 충분한 시간량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4〉 가사노동 항목별 남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단위: 분)

항목	전체	가족과 사는 미혼	혼자 사는 미혼	자녀 없는 기혼	자녀 있는 기혼	one way
전체 가사노동	31.2	27.4	46.9	26.0	33.2	***
음식 준비	8.5	10.8	19.0	5.7	7.8	***
상품 및 서비스 구입	9.7	4.9	8.2	9.3	11.9	***
청소 및 정리	9.6	8.8	13.7	7.8	10.5	**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0.4	0.7	0.0	0.5	0.5	
차량 관리	0.8	0.6	0.2	1.0	0.8	
가정용 섬유 및 신발 관리	1.4	1.4	5.2	0.7	1.1	***
기타 가정관리	0.7	0.1	0.5	1.0	0.7	

\*p < .05, \*\*p < .01, \*\*\*p < .001p

#### 4. 성별 회귀분석

가사노동 시간이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수인 가사노동 시간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 변수는 연령, 교육 수준, 직업, 유급노동 시간, 개인 소득, 성역할 태도, 요일, 생애단계 전환 유형이다. 가사노동을 설명하는데 성별 차이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여성과 남성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김수정·김은지, 2007).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 각각의 가사노동 시간량을 변화시키는 개인적 특성이 무엇인지 서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 1) 여성의 요인별 회귀분석

여성의 특성별 가사노동 시간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사노동<sup>8)</sup> 시간량에 교육수준과 성역할 태도를 제외한 모든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가사노동 시간은 약 6.7분씩 늘어났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생애주기에 따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직업에서는 ‘무직’ 여성의 대다수가 전업 주부이고 따라서 가사노동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낼 것으로 예상되어 기준 집단으로 정하였다. 그 결과 ‘무직’ 여성에 비해 ‘사무직’ 여성이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33.2분). 그 다음으로 ‘전문직 및 관리직’이 무직보다 32.8분 적게 보냈고, ‘서비스직’이 약 33.2분 적게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노동 시간이 1시간씩 증가하게 되면 가사노동 시간은 1.2분 감소하였다. 개인 소득이 많아질수록 가사노동 시간은 3.3분 줄어들었다. 여성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줄어들고 있었다. 아내가 가구소득에 기여하는 것이 클수록 가사분담에서 협상력이 높아져 가사노동이 감소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김수정·김은지, 2007).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노동 시간이 길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사노동 시간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수정·김은지(2007)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의 소득이 남편을 추월하게 되면 오히려 가사노동을 증가시킴으로써 역전된 성별분업을 보상한다고 지적한다. 요일별로 살펴보면 평일보다 주말에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에는 평일보다 15분, 일요일에는 평일보다 약 29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생애단계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 살 때와 비교해 혼자 살게 된 미혼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과 사는 미혼 여성보다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은 21.1분 더 많은 가사노동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은 가족과 함께 사는 미혼 여성보다 38.3분 많은 시간량을 가사노동에 보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하면 가사 노동 시간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 또한 시간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이 늘어나면 특히, 어린 자녀가 늘어나면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하는 이전 연구와 부합한 결과였다(Walker and Woods, 1976; 임정빈·임혜경, 1992). 그러나 교육 수준과 성역할 태도는 가사노동 시간량에 아무런 변화를 주고 있지 않았

8) 회귀분석에서는 ‘전체 가사노동’ 시간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세부 항목별 시간량 변화도 분석하였으나, 실제 해석에서 불필요하여 삭제하였다. 추가로 제시 가능하다.

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누가 가사노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상적인 신념을 의미할 뿐 실제로 가사노동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이 있다(Thompson and Walker, 1989)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 2) 남성의 요인별 회귀분석

남성의 경우 가사노동 시간에 변화를 주는 요인은 연령, 유급노동 시간, 성역할 태도, 요일, 생애단계별 유형이었다. 여성과 달리 성역할 태도에 따라서도 가사노동 시간량이 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가사노동 시간은 약 0.7분 증가하였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생애주기에 따라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결혼 후에 자녀를 갖게 되면서 가사노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급노동 시간 증가할수록 사용 가능한 시간량이 감소하여 가사노동을 줄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유급노동 시간 외에 사용 가능한 시간이 더 많은 평일보다 주말에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었다. 토요일에 남성들은 평일보다 약 24.7분, 일요일에는 약 34분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가용성 이론에 따라서 평일보다 주말에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수정·김은지, 2007; 이승미, 1994). 여성과 다르게 성역할 태도가 진보적일수록 가사노동 시간이 약 3.1분 증가하였다.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가사분담에 더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결과를 지지했다(이승미, 1994; Daniel and Jamie, 2013). 마지막으로 생애단계 전환 유형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 변화는 다음과 같다. 가족과 함께 사는 미혼 남성에게 비해 혼자 사는 미혼 남성들이 20.7분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투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기혼 남성은 가족과 사는 미혼 남성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은 가족과 사는 미혼 남성보다 7.9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남성은 가족과 함께 살 때는 어머니가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담당하였고, 결혼해서는 아내가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녀가 생기면 가사노동 시간이 다소 증가하지만 여전히 아내가 주로 집안일을 하게 되므로 남성은 가사노동 시간이 많이 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혼자 살게 되면 집안일 모두를 혼자 해내야하기 때문에 가사노동 시간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 이론에 따라 어린 자녀가 생기면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Walker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Walker and Weeks, 1976; 임정빈·임혜경, 1992). 함께 사는 가족구성원이 없는 혼자 사는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남

성들은 ‘여성’의 존재 유무가 가사노동 시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전체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요인별 회귀분석

구분		여성	남성
		Coef.	Coef.
연령		6.688 ***	0.704 *
교육	(고졸 이하)		
	대졸	-7.919	3.739
	대학원	-14.072	7.259
직업	(무직)		
	학생	-23.316	-39.421
	전문직 및 관리직	-32.731 ***	0.398
	사무직	-33.149 ***	7.317
	서비스직	-27.821 **	-0.036
	단순 노무직	-17.279	1.901
	농업	69.952	21.887
유급노동 시간		-1.214 ***	-0.497 ***
개인소득		-3.336 **	0.771
성역할 태도		-0.664	3.089 *
요일	(평일)		
	토요일	15.000 **	24.741 ***
	일요일	28.987 ***	33.958 ***
생애단계 전환	(가족과 사는 미혼)		
	혼자 사는 미혼	0.415	20.698 ***
	자녀 없는 기혼	21.092 ***	-0.979
	자녀 있는 기혼	38.327 ***	7.936 *
_cons		-38.168 *	-3.956
N		2,879	2,502
F(p)		87.25 ***	19.71 ***
R <sup>2</sup>		0.3414	0.1189

\*p < .05, \*\*p < .01, \*\*\*p < .001p

## V. 맺음말

이제까지 한국의 가사노동 연구가 주로 기혼 중심의 불평등한 가사분담 문제에 치중된 것이었다면 이 연구는 미혼의 시기까지 확장하여 성인이행기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를 대표성 있는 양적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한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과연 기혼 여성들만이 남성보다 더 많은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기혼 여성뿐만 아니라 미혼의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을 더욱 많이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인이행기의 생애단계 전환에 따라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량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은 어느 시기에서든지 남성보다 가사일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심지어 혼자 살고 있을 때에도 미혼 여성은 미혼 남성보다 더욱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혼자 사는 미혼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다른 가족 구성원인 어머니 또는 남편, 자녀가 있을 경우와 비교하여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혼자 살 때보다 다른 가족과 함께 살 때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남성들은 부모님과 살거나 아내와 사는 경우 혼자 살 때보다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었으며, 시간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안에 어머니나 아내가 있을 경우 이들이 가사일에 더욱 많이 투입됨으로써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남성보다 여성이 ‘어머니’나 ‘아내’ 역할을 함으로써 가사노동을 하도록 사회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남성은 여성을 도와주는 입장이거나 집안일을 만들어 내기도 하여 도움을 받는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라는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성인이행기 여성들은 남성보다 가사노동에 책임 및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이전 연구(장미혜 외, 2011)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결과이기도 하다.

가사노동의 젠더불평등 문제는 어린 시절 사회화된 젠더 이데올로기의 발현이라는 것을 볼 때(Scott and Glenna, 1994) 성인이행기에 놓인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추후 기혼 부부의 가사분담 젠더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뒷받침하는 기초 통계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저출산 해결을 위하여 결혼이 장려되고 있는 정책 추구 대상에 대한 기초 이해를 제공함과 동시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비혼 인구의 결혼 지연 및 결혼 기피의 원인 중 하나인 젠더불평등한 가사노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간량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의 근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아내’ 또는 ‘부모’의 역할을 맡기 이전인 미혼 시기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일에 책임과 부담감을 느낀다면 과연 생애과정에서 ‘결혼’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사노동은 ‘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이 개입되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습득하게 되는 젠더사회화와 젠더행하기가 이후의 생애주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가정 내 역할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행위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딸’에게만 가사 참여를 요구한다든지, ‘아들’에게는 딸보다 가사노동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면서 이를 위하여 가정 내 교육 지원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시간량을 비교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시간일지 자료의 특성상 시간의 질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주관적인 시간 압박과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응답이 가사노동으로 인한 결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들이 ‘압축적’으로 시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시간의 질도 좋지 않을 것이라 예상해 본다. 예를 들어, 요리를 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동시에 스마트 폰으로 가정용품 쇼핑을 하거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조주은, 2008). 긴 가사노동 시간도 문제이지만, 그 시간을 ‘오염된 시간(contaminated time)’으로 보내고 있는(브리짓 숄트, 2015) 대다수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가사노동과 깊은 관련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가사노동 중에서도 돌봄노동을 제외한 가사노동만을 분석한 점이다. 가정 내에서의 가사노동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기혼 부부의 경우에는 돌봄노동이 가사노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혼 남성의 경우 가사노동 시간은 적지만 돌봄노동 시간은 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혼의 경우 육아와 가사노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아 편향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을 제외한 가사노동인 요리나 청소, 빨래 등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구 내의 다양한 요인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 변화를 분석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평등한 가사분담에 대해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가족과 사는 미혼의 경우 부모님의 경제활동 또는 소득 등은 고려하지 못하였고, 기혼 부부 내에서는 맞벌이·외벌이 여부 등에 대한 고

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넷째, 생애단계 전환 유형을 혼인상태와 동거형태(Living arrangements)를 고려하여 구분하였으나 이 유형 구분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성인기 이행의 생애과정을 모두 반영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가족과 함께 사는 미혼’의 경우 부모님을 포함한 다른 가족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나 다른 가족구성원 파악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며, 해외 연구(Scott Coltrane and Masako Ishii-Kuntz, 1992; Scott and Glenna, 1994; Baxter et al., 2008)와 비교하여 자료의 특성상 동거 커플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어 기혼 커플과 동거 커플 사이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섯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조사 대상의 특성상 ‘무직’의 비율이 높아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후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가사노동 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집중하여 한층 나아간 깊이 있는 논의와 함께 발전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2014년 한 시점의 자료만을 이용한 분석에 그쳐 종단적 변화를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 생애과정에 따른 연구인만큼 이후 연구에서는 발전된 논의와 함께 보다 긴 관점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소정(2013).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인기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22권 1호. 89-111.
- 김수정·김수지(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한국사회학. 제41권 제2호. 147-174.
- 김영(2015). “지연되는 이행과 스크럼 가족-일본여성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3호. 79-116.
- 김영란·장혜경·이윤석(2017).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지·김수정(2009). “성별 가사노동시간 측정: 시간일지와 서베이 문항 방식 비교”. 조사연구. 제10권 제2호. 1-21.
- 남춘호·남궁명희(2012).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경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성인기 이행의 구조변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20권 제2호. 91-128.
- 박기남(2011). “20-30대 비혼 여성의 고용 불안 현실과 선택”. 한국여성학. 제27권 제1호. 1-39.
- 배은경(2009). ‘경제 위기’와 한국 여성-여성의 생애전망과 젠더/계급의 교차. 페미니즘 연구. 제9권 제2호. 39-82.
- 브리짓 숄트, 안진이 옮김(2015). 타임푸어. 더 퀘스트
- 안미영(2018). “한국 기혼 여성의 시간제 근로와 가족 내 무급노동 분배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97권 제2호. 45-71.
- 안선영·김희진(2012). “성인의 기준에 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성인의 인식 비교”. 미래청소년학회지. 제9권 제4호. 75-97
- 우해봉(2009).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연기 혹은 독신?”. 한국 인구학. 제32권 제1호. 25-50.
- 은기수(1999).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 생애사건연쇄분석”. 한국 인구학. 제22권 제2호. 47-71.
- 이삼식·최효진(2010). 생애주기변화와 출산행태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승미(1994).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충북 가정학회지. 제3권 제1호. 23-31.
- 이연숙·박경은(2000). “가사노동의 모녀간 세대전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8권 제2호. 29-44.

- 이운주(2018). “성인이행기와 관련된 지위의 변화가 청년 남녀의 성역할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제20집 제2호. 105-128.
- 이정하·박정윤·윤나나(2017). “비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23권 제2호. 183-214
- 이지선·조혜정(1999). “중·고등학생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제3호. 111-125.
- 이창순(201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0권 제2호. 29-54.
-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김연화·서연경(2011). 성인기 이행의 성별 차이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인수·우해봉(2017). “기혼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와 영향요인 분석”. 여성연구. 제95권 제4호. 41-72.
- 정민우·이나영(2011).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성별화된 독립과 규범적 시공간성. 경제와 사회. 제3권. 105-145.
- 조주은(2008). “압축적 시간성을 통한 ‘바쁨’”. 한국여성학. 제24권 제3호. 211-242.
- 주익현(2018). “남편의 가사활동이 부부의 가사분업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여성연구. 제97권 제2호. 141-166.
- 지금수(1990). “어머니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제4호. 155-176.
- \_\_\_\_\_(1994). “어머니와 기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제1호. 161-170.
- 차승은(2014). “니트 청년의 시간활용에서의 특이성과 차별성: 청년기 가족 연구에 대한 시사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9권 제2호. 75-95.
- 채금희·최동숙(2000). “중학생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 및 참여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12권 제3호. 39-51.
- Arnett, J. J.(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_\_\_\_\_(2001).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erspectives from adolescence through midlif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8(2): 133-143
- Baxter, J.(2005). To Marry or Not to Marry: Marital Status and the Household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26(3): 300-321

- Baxter, J. & Hewitt. B & Haynes. M.(2008). Life Course Transitions and Housework : Marriage, Parenthood, and Time on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0 : 259-272
- Berk, F. Sarah.(1985). *The gender factory : The apportionment of work in American households*. New York : Plenum
- Coltrane, S. (2000). Research on household labor : Modeli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 1208-1233ng and Measuring the Social Embeddedness of Roution Family
- Cunningham, M. (2001). Parental Influences on the Gendered Division of House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 : 184-203
- Craig, L., A. Powell and J.E. Brown. (2014). Co-resident parents and Young People Aged 15-34 : Who Does What Housework?.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1(2) : 569-588
- Craig, L., A. Powell and J.E. Brown. (2016). Gender patterns in domestic labour among young adults in different living arrangements in Australia. *Journal of Sociology*. 52(4) : 772-788
- Coverman, S. (1985). Expla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Sociological Quarterly*, 26 : 81-97
- Cunningham, M.(2005). Gender in Cohabitation and Marriage : The Influence of Gender Edeology on housework Allocation Over the Life Course. *Journal of Family Issues*. 26(8) : 1037-1061
- Daniel L. C. and Jamie L. L.(2013). Housework : Cause and consequence of gender ideology?. *Social Science Research*. 42 : 1505-1518
- Demaris, A. and Longmore, M, A.(1996). Ideology, Power, and Equity : Testing competing Explanations for the Perception of Fairness in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4(3) : 1043-1071
- Gupta, Sanjiv.(1999). The effects of transitions in marital status on men's performance of housework. *Jou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3) : 700-711
- Hardesty, C., and Bokemeier, J.(1989). Finding time and making do : Distribution of household labor in nonmetropolitan 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 253-267
- Hochschild, A. R.(1989). *The second shift : working parents and the revolution at home*. NY : Viking

- McDowell, Linda. (1983).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gender divisions of Urban space. *Society and space*. 1(1): 59-72
- Moen, P. (2010). *From 'Work-Family' to the 'Gendered Life Course' and 'Fit': Five challenges to the field*. Discussion Paper SP I 2010-501.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Berlin(WZB).
- Oakley, A.(1974). *The sociology of housework*. NY: Pantheon.
- Scott Coltrane and Masako Ishii-Kuntz.(1992). Men's Housework: A Life cours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43-57.
- Scott J. South and Glenna Spitze.(1994). Housework in marita and nonmarital househo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327-347
- Walker, K., and Weeks, M.(1976). *Time use: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C: Center for the . family of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West, Candace, and Don H. Zimmerman.(1987). doing gender. *Gender and Society*. 1: 125-151
- 통계청, 2014.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 \_\_\_\_\_, 2017. “인구동향조사”

Abstract

## Housework time during Transition into Adulthood : A Gender Comparison

Jin-Sook Lee\*·Yun-Suk Lee\*\*

Most research on gender divisions of housework focuses on married-couple in South Korea. This article extends this literature to examine gender differences in housework across Living arrangements and marital status, with particular focus on during transition into adulthood. This study examines the amount and composition of domestic work performed by 25-39-year-old using nationwide representative time-diary data in 2014. They are divided by marital status and Living arrangements: single with family, living alone, married without children and married with children. It finds that females spend more time on housework regardless of marital status and Living arrangements than males. This means that women are socialized to perform household labor. The highlight of this article is that females living alone spend less time doing housework than other females. In contrast, males living alone spend the longest hours on housework compared to males living with family. Moreover, females' housework time increase rapidly after getting married, but males living with wives spend on lowest housework time.

**Keywords :** marital status, living arrangements, housework time, time diary, gender, transition into adulthood

---

\*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